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I)

현 용 준

— 차 례 —

- | | |
|------------|--------------|
| I 서 | II 촌민의 구성 |
| II 촌락의 개관 | IV 가족관계 및 친족 |
| 1. 북촌리 | 1. 가족의 구조 |
| (1) 지리적 환경 | 2. 분가와 상속 |
| (2) 인문 개황 | 3. 친족과 그 기능 |
| 2. 용담리 | V 촌락의 조직 |
| (1) 지리적 환경 | 1. 피동적 조직 |
| (2) 인문 개황 | 2. 자발적 조직 |
| 3. 종합 | 3. 비조직적 결합 |

Hyun Yong-joon : A Study of Life in Coast-Villages of Cheju-Do (I)

SUMMARY

This is a report of the first half of a survey on modes of living of coast-villages in Cheju-Do. And it is part of a preliminary work in order to describe the ethnography of this island.

I selected the two coast-villages as sample in this survey — Bukchon-Ri, Chochun-Myun, where is regarded as a typical coast-village in the country and Yongdam-Ri which is near Cheju-City as the contrary district, and tried to investigate the social structure, religion, custom, manners of production, food, clothing and housing, tradition, etc., in a word, the whole culture of the villages in connection with it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is report is concerned only with the social structure (and its religion) among the various agents in culture.

In this report the following contents are compared and described a coast-village with the other.

I Background of the Villages

1. Geographical Background of the Two Villages
2. Historical Background of Two Villages

II Composition of Villagers

III Family And Kinship

1. Family Composition

2 Sedaration of Family And Inheritance

3 Kinship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

IV Organization of Villigers

1 Passive Organization

2 Spontaneous Organization

3 Informl Organization

As Bukchn-Ri lies in countryside and its geographical background has advantage of the fishery, the social structure maintains the character of a fishing village. But Yongdam-Ri lies near the city and its geographical background is advers to fishing, so its strucfure of fishing village has almost collapsed.

Accordingly, in Bukchon-Ri the traditional Hasband-Wife family is well regulated, and the composition of villager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econmic, cultural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scarcely the character of fishing villages like that in Yongdam-Ri.

Inheritance in the fishing villages is epually shard among their son externally, but in fact, the eldest son has more property slightly than younger son. Such system has brought the following—being diligent, being frugal, being independent, and the special econmic structure, various customs.

External order and co-operation of the villages are formed by the modern passive organizations; but internal order and co-operation are formed by the tspontaneous organization, kinship organization, and mutual aid.

The various fact like those mean that seaside villages in Cheiu-Do keep up their traditional cultural pattern inspite of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modern culture.

I 서

이 조사는 제주도 민속지 작성을 위한 출발작업이다.

이제까지 제주도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가 주로 구승문예에 치중하여 문화사상별로 진행되어 왔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제주도 문화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미 상식처럼 운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전체적 동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는 얼마보지 못하는 실정이다.¹⁾ 여기에 우리는 제주도 민속지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민속지 작성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지리적 촌락 구조적 성격에 비추어 해촌, 중산촌, 산촌별의 조사를 하고 그것을 귀납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믿고, 우선 그 출발로서 해촌의 생활구조를 조사 기술한 것이 이 보고다.

따라서 본 조사는 그 영역을 해촌 촌락의 지리적 역사적배경의 기반위에 사회구조, 신앙,

(1) 제주도의 민속지적 조사연구로는 泉塘—著「濟州道」196 년 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간이 있음.

관습, 생산기술 의식주 구승문에 등 전반으로 잡고 이를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려고 하였다.

본고는 지면관계상 이 조사의 일부만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주로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 것이다. 신앙 생산기술 의식주 등 여타의 부문은 별고로 미룬다.

본 조사는 그 표본지역으로 2개 자연부락을 선정했다.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본동「뒷개」와 제주시 용담1동의 「동한두기」가 그것이다.

북촌리 본동 「뒷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제주도의 전형적인 시골성 해촌으로서 손꼽히는 곳이기 때문이요, 용담 1동의 「동한두기」는 과거는 해촌적 성격이 농후했으나 제주시가의 번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까닭에 점차 도회성을 띠어가는 해촌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양 해촌의 변화 차이를 아울러 살펴 보자는 의도에서이다.

이 보고는 1967년 7월에서부터 동년말까지 현지조사한 것이며 조사범위는 북촌리 본동 「뒷개」 250가구 전체와 용담1동 「동한두기」 95가구 전체를 조사한 것이다. 편의상 다음부터 「뒷개」를 북촌, 「동한두기」를 용담으로 표기하려 한다.

본 조사에 있어서, 가족구성, 가옥및 문화시설, 생업및 재산, 생활정도등은 이동사무소의 비치서류를 주로 이용 조사했고, 기타는 직접 면접과 관찰에 의한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주로 통계적 방법으로 많이 처리했다.

이 조사를 착수할 때의 의도는 양 촌락의 생활구조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조사 분석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미진된 부분이 많다. 특히 친족조직및 촌락내외 제조직의 기능을 면밀히 형식적인 측정을 못한 채 이 보고를 씀이 자못 서운한 바 있다. 이 점 후고(後稿) 전체적인 보고에서 보완하기로 하고 우선 대방의 질정을 바라는 것이다.

이만한 조사도 주한 아시아재단의 재정적 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여기 밝히고 깊은 감사를 올리는 바이다.

II 촌락의 개관

1. 북 촌 리

(1) 지리적 환경

북촌리는 북제주군 조천면의 최동단에 위치한 해안부락이다.

달걀 같은 모양의 제주도의 주 교통로는 섬 둘레를 한바퀴 도는 일주도로인데, 제주시에서 이 도로의 동회선 버스를 타고 근 한 시간, 18.9km를 달리면 이 마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동은 구좌면 동북리에, 서는 조천면 함덕리에 인접해 있고 남은 동면 선흘리에 접했으며 북은 바로 바다에 임해 있는 것이다.

한편 조천면의 위치를 보면, 이 면은 북제주군의 한 면으로서 동은 구좌면, 서는 제주시, 남은 남제주군에 접했고 북은 바다로 둘러 있는데,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보이면 <표2~1>과 같다.

<표2-1>

경 도			경 도		
방 위	지 명	동 경	방 위	지 명	북 위
극 동	북촌리 1	127°76'	극 남	교래리 산 137	35°35'
극 서	신촌리 3,909	127°34'	극 북	조천리 911	35°38'

조천면의 위치²⁾

북촌리는 조천면의 10개 행정촌의 하나인데, 이 행정촌으로서의 북촌리는 3개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본조사 대상지역인 북촌리 본동 <뒷개>와 이 <뒷개>의 서쪽 해안부락인 해동 <해랭이>와, <뒷개>마을의 남쪽 변두리를 가로 지른 일주도로 건너 남쪽에 위치한 억수동 <영물>이 그것이다. 행정촌명 <북촌>이 <뒷개>의 한자표기임에서 충분히 추측되는 만큼, 자연촌 <뒷개>가 이 3개 자연촌중에서 가장 집락이 크고 인구가 많으며 행정적 경제적 기타 모든면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북촌리 본동 <뒷개> (이하 북촌이라 하겠음)는 그 서쪽 경계선인 서산봉(서무오름, 112m)의 동하(東下)에 위치하고 바다를 향한 경사면에 집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산봉(서무오름)은 비록 산이긴 하지만 이 근처에서 가장 토지가 비옥한 곳이어서 그 봉상의 약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산물을 경작하는 곳이어서 본이민의 선망의 경지이다. 그러나 그 봉상중심(峯上中心)으로 함덕리와와의 경계선이 그어졌기 까닭에 북촌민의 소유가 그리 많지 못하다. 이 서산봉을 제외하면 북촌민의 경지는 마을 남변 일주도로 건너에 있는 바 이 경지들은 조천면 10개리중에서 가장 각박한 편이라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보리, 조를 주경하여 이민의 식량을 자급할 정도였고 근래에는 고구마, 유채등 환금작물을 많이 갈아서 농업에서의 수익이 높게 되었지만, 역시 타리에 비하면 열등하다.

그런 반면, 이 마을의 북쪽을 둘러 있는 해안선은 그 굴곡이 발달하여 좋은 어항(성창(船塢)이라 함)과 어장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특히 앞바다 약 650m 해상에 「다려(獺嶼島)」라고 일컫는 암석 돌출 무인도서가 있어, 이 마을의 보도(寶島)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이 <다려도>는 조수의 간만에 따라 그 출현 암초의 수가 다르며, 넓은 암초가 잠겨 있는 섬인데, 이 섬이 마을의 앞바다를 가려 주어 어항의 호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초마다 미역, 소라, 전복등 해녀채취물이 풍성히 번식하고 또 풍랑에 밀려 오는 마미초등 해조류들 이 마을

2) 禹樂基著 濟州道一大韓地誌 1 P.306인용.

앞에 정채시켜 준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북촌은, 농업은 겨우 자급자족할 정도이지만 어업 내지 해녀업은 타 해촌의 배 수입은 얻는다는 성황한 어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인문 개황

이 마을의 설촌은 약 870여년전에 되었을 것이라고 촌로들은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북촌의 동쪽 경계선 부근에 <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토지가 비옥하므로 처음 육지에서 입도한 공씨가 살기 시작했다 하며 (그래서 「공장이왓」이란 밭 이름이 있음), 또 서측 경계선인 <서무오름>이 토지가 비옥하므로 육지에서 입도한 공씨가 정주하기 시작했다 [한다. 그래서 지금도 「공개터」란 밭이름이 있다.

여기에 처음 농경정착한 <공씨족>들이 봉천수를 먹으며 살다가 한밭시는 뒷쪽에 있는 개(後側浦, 北側浦), 즉 현 북래 본동에 있는 샘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그 때부터 이 샘이 있는 개(浦)를 <뒷개>라 부르게 되었으며, 후에 한자표기로서 <北浦>라 적어 왔었다.

그 후 坡平尹氏 星州李氏 全州李氏등이 입주, 음료수가 좋은 현 본동으로 거주가 옮겨져 집촌이 이루어져 갔는데, 지금은 각 성씨가 혼주하고 있지만, 지금도 윤이촌이라 불리울 만치 윤씨와 이씨가 호수도 많고 또 촌락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씨족(主氏族)이 되고 있다.

이씨의 조상에서는 이조 영조시의 萬頃令(李光彬), 宣傳(李光秀), 全州中軍(李邦翼) 및 참판, 제주판관, 명월만호등 역대 벼슬을 많이 했고 윤씨도 대정현감을 2회나 거듭 하는등, 이 마을에서 벼슬이 많이 났다. 이렇게 문무가 겸한 마을의 이름을 「浦」자를 써서 「북포」라 함이 너무 천타 하여 약 65년전에 「北村」이라 한자표기명을 고쳤다 한다.

이와 같은 문무겸비의 선조의 공지에 선지, 지금의 촌로들에게선 도(島) 보편적인 포촌천시(浦村賤視)의 관념에도 불구하고 포촌민으로서의 비속감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조중엽에는 그렇게 관세가 등등하였지만 그 후에는 별로 뛰어난 인물이 없어 일제 대정(大正)때까지 계속된 서측 경계선 논쟁에도 함덕리의 인물과 권세에 물려 <서무오름>중간선으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며, 오늘날도 관제진출자는 국민학교장이 1인, 경위가 2인정도를 손꼽고있는 형편이다.

해외진출로는 대관에 50여세대, 동경에 7·8세대의 재일교포가 있어 향리의 국민학교 교실의 증축 및 촌리발전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북촌은 1948년 4·3공비사건 때 심한 피해를 입은 마을의 하나로서 동리 청년층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또 마을의 신당청(本鄉堂)을 제외한 모든 민가가 다 타 버렸다. 그 후, 재건하여 오늘날 250가구의 집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여 꽤 부촌을 이루어 놓았다.

교통은 편리하니, 마을 앞을 가로 지른 일주도로에 오전 6시40분부터 저녁 7시40분까지 오전중엔 40분마다 1대씩, 오후엔 30분마다 1대씩의 버스가 지나서 촌민의 제주시의 내왕이 잦다. 그래서 서쪽 마을인 함덕리에 5일장(市場)이 서지만 간단한 일용품은 제외하면 어획물 기타를 제주시에 운반 판매하고 또 소요품을 사 간다.

또 마을 안에 우편함이 1개 설치되어 있어, 집배원이 2일에 1회씩 왕래하여 통신의 불편도 거의 없다.

학교는 6학급 293명의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중 287명이 본동(뒷개)의 아동이며 취학율은 100%라 한다.

중요기관 및 시설로는 이사무소를 비롯하여 농협조합 어촌계등 행정조직기관과 수육판매소 1, 이발관 2, 정미소 2, 잡화상 9 등이 있고, 의료시설은 함덕리의 양약방이나 제주시의 병원을 이용하며, 가끔 조천리의 공의진료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 이 마을에서 수집되는 해조류를 원료로 사료를 가공하는 「해양사료공사」가 세워져 가동되고 있다.

촌락의 경제는 간단히 말해서 농산물은 자급자족에 충분하고 해산물의 수입은 부수입이라하겠는데, 그 중 해녀채취물의 수입만도 연간 6백만원에 헤아리게 되어 있어, 마을의 급속한 복구부흥이 된 것이라 보인다.

한편 소비경향으로서는 1개월간 주류 소비량이 약 300승, 육류 소비량이 700근 정도라 한다. (윤상립씨담)

2. 용 담 리

(1) 지리적 환경

〈동한두기〉는 제주도 용담동의 1구역으로 제주시가져 서측 변두리에 위치한 해촌이다. 용담동의 동측 경계는 병문천으로 되어 변화한 시가 3도동과 접해 있고 마을의 중앙으로 한라산에서 발원한 한천이 가로 질러 있다. 이 하천들은 제주 어디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천천인데, 양하천의 말류(末流)에는 각각 청정(淸澄)한 지소(池沼)가 이루어지면서 해안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병문천 말류를 북망포라 하고 한천 말류를 대웅포라 하여 소박한 어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본조사 대상지인 〈동한두기〉는 이 양포구 사이 해안에 가로 놓여진 자연집촌이다.

농경지는 동리의 남쪽에 있으나 시가지의 침식으로 점점 협소해졌고 동리의 동서측에 포구는 있지만 돌맹이로 이루어진 해안이어서, 심한 풍랑에 밀려오는 돌맹이로 포구가 매설되어 막히기 일췌이고, 수심이 얕은데다 조수의 간만으로 수심차가 심해 어항으로서 매우 불편하다.

(2) 인문개황

이 <동한두기>는 한두기(大瓮浦) 동변에 위치했다 하여 그리 불리우는 것인데, 본래부터 제주성 밖에 위치한 빈한한 어촌이었다. 옛날에도 성내에 살 수 없었던 빈한한 어민이 살던 곳이어서 항상 성내의 문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류층이 거주하는 촌락이 되고 있다. 빈한한 백성이 살던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도 90~100세대가 거주하지만 셋방살이의 이주가 많고, 주민의 직업도 농업, 어업, 공무원, 회사원, 상업, 공업, 노동등 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주민이 많다.

이 곳은 본래 어촌이긴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어항이 나쁘고, 또 해안이나 바다의 조건이 좋지 못하여 어촌으로서 부유할 수가 없게 되니, 자연 장기 정착한 세도가문이 없는 것이다.

이 곳에는 신도 50여세대를 가진 용화사라는 자그만 사원이 있어, 주로 용담동의 신도를 포용하고 있으며, 잡화상이 둘 있는 외에는 거의 아무 시설이 없다. 모든 기관과 시설은 다 시가지엿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3) 종 합

① 북촌은 전형적인 시골성 해촌으로 어촌적 성격이 농후하나, 용담은 도회화 해 가는 해촌으로 도회 번두리의 혼잡성을 띠고 어촌적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표2~2>가 보이는 바와 같이 세대주의 직업이 북촌에 비하여 용담이 매우 잡다함에서 입증되며, 또 어선보유상황 <표2~3>이 북촌 41에 용담이 8밖에 안되는 것이나, 해녀수 <표2~4>가 북촌 240에 용담 4라는 수가 방증한다.

<표2-2> 세 대 주 직 업

직업→ 이별↓	농	농 어	고용어업	사원	공무원	상업	노동	공업	교육의업	무업	승녀	무직	계
북 촌	210	28			4	4				3		1	250
용 담	28	4	9	7	7	5	3	2	1	3	1	25	95

<표2-3> 어 선 보 유 상 황

선별→ 이별↓	동 력 선	종 선	배 우	화 물 선	계
북 촌	2	24	13	2	41
용 담	2	4			8

는 문 집 제 2 집

② 북촌은 자연환경이 농어에 적합하여 생활이 시골로서는 <표2-4> 해 녀 수
 풍요한 편이나, 용담은 자연조건 및 도시적 조건이 모두 불리
 하여 일반적으로 가난한 편이다.

이는 <표2-5> 주택 소유상황이나, <표2-6> 농지소유상황
 및 <표2-7> 가축 소유상황이 보이는 바에서 알 수 있다. 북
 촌은 와가가 6.8%, 무주택자가 10.4%인데, 용담은 와가가
 3.2%, 무주택자가 31.6%나 되며, 북촌의 세대당 평균 농지소
 유는 2,241평인데, 용담은 1,179평이며, 농가의 농우소유평균이 북촌은 0.6두, 용담은 0.1두가
 된다. 이만큼 북촌과 용담의 경제구조적 차이를 보여 준다.

수→	해 녀
이별↓	
북 촌	240
용 담	4

<이 수는 잠수회에 가입한해녀수임>

<표2-5> 주 택 소 유 현 황

이 별	와 가	도 당	스 레 트	초 가	무 주택	계
북 촌 실수	17	6	3	198	26	250
%	6.8%	2.4%	1.2%	79.2%	10.4%	100%
용 담 실수	3	1	1	60	30	95
%	3.2%	1.1%	1.1%	63.2%	31.6%	100%

<표2-6> 농 지 소 유 상 황

이 별→	북 촌 용 담						계				
	세대수	면적	평균 면적	농업이외의 가족직업	세대수	면적	평균 면적	농업이외의 가족직업	세대수	면적	평균 면적
농 업	210	457,595	2,179		19	19,353	1,019	교원1 어1 고용1 공업2	229	476,948	2,083
농 어	28	80,897	3,103		4	8,619	2,155	사원4 공무 원3 점원2	32	89,516	2,797
공무원	4	7,630	1,908		3	4,760	1,587	자영1	7	12,390	1,770
사 원					3	1,628	543		3	1,628	543
상 업	2	1,929	965		1	1,000	1,000		3	2,929	976
[무]	2	3,135	1,568						2	3,135	1,568
계	246	551,186	2,241		30	35,360	1,179		276	586,546	2,125

북촌 250세대중 4세대는 농지 미소유세대이며 용담의 통계는 조사된세대만의 통계임.

<표2-7> 가 축 소 유 상 황

가 축 이 별	농 가 수	우	마	돈
북 촌	238	(0.6) 144	(0.3) 68	(0.8) 184
용 담	32	(0.1) 3	(0.03) 1	(0.9) 28
계	270	(0.5) 147	(0.3) 69	(0.8) 212

농가수는 농어업점 세대도 합친수임. ()안의 수는 평균 소유수임

3. 촌 민 의 구 성

북촌과 용담의 가구와 인구상황은 <표3~1>과 같다. 즉 북촌은 250가구에 총인구 1,182인으로서, 가구당 평균 인구는 4.7인이며, 용담은 95가구에 총인구 522인으로서 가구당 평균 인구는 5.5인이다.

한편 주민의 성비를 보면 <표3~2>가 보이는 바와 같이 북촌이 87.9이고 용담이 94.1이며, 이들을 평균하면 가구당 평균인구는 4.9인, 성비는 89.8이 된다.

여기서 보면 도회성 해촌이 시골성 해촌보다 가구당 평균인구가 훨씬 많고 성비도 훨씬 높음을 알게 된다. 도회성 해촌인 용담이 가구당 평균인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주로 무주택자가 많아서 분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있는상 싶다. 역시 빈곤과 도시의 주택난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북촌의 성비가 용담보다 낮은 것은 다음 통계가 밝혀 주겠지만 4·3폭동사건으로 인한 당시 젊은 남자들의 많은 희생 때문이라 해석된다.

위의 가구당 평균인구 및 성비를 제주도 전체의 그것에 비교해 보기 위하여 도의 통계를 옮겨 보면 <표3~3>과 같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도의 가구당 평균인구는 4.6인에서 4.7인 그 사이 인데, 이에 비하면 용담의 5.5인은 확실히 비정상적인 것이요, 북촌의 4.7인이 정상적 수치임을 알게 된다.

한편 이 가구당 평균인구를 육지부 촌락의 그것에 비교해 보기 위하여 경북 하회의 그것에 대비해 보면 <표3~4>와 같다. 이 표가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는 4.4인에서 4.7인의 변동인데 하회는 5.1인에서 5.7인 사이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는 제주도의 가족구조 내지 촌락구조의 특성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또한 성비면으로 보면 북촌 용담 양리의 계는 89.8로서 66년도 도전체의 성비 90에 대차 없으나, 좀 더 장기간의 도전체의 성비를 보면 <표3~5>와 같다.

1957년도의 성비가 81로 낮은 수를 보일은 4·3폭동사건으로 인한 남자희생자 때문이며, 그 후 차차 평준을 되찾아 90에 이른 것이라 본다. 또한 1916년도 1928년도등의 성비는 96, 93 등, 다 90을 넘고 있음을 보면 북촌이 아직 87.9라는 성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도 4·3폭동사건이 주민구조에 미친 영향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표3-1> 가 구 . 인 구

이 별	가구수	인 구	남	녀	가구당평균인구		
					총 계	남	녀
북 촌	250	1,182	553	629	4.7	2.2	2.5
용 담	95	522	253	269	5.5	2.7	2.8
계	345	1,704	806	898	4.9	2.3	2.6

1967,8월 조사

논 문 집 제 2 집

<표3-2> 주민의 성비

북			촌			용			담			계		
남	녀	여100인에 대한비	남	녀	여100인에 대한비	남	녀	여100인에 대한비	남	녀	여100인에 대한비	남	녀	여100인에 대한비
553	629	87.9	253	269	94.1	806	898	89.8						

<표3-3> 시군별 가구 및 인구

구 분 → 연도 및 시군별	가 구 수	인 구 수			성비	가구당 평균인구
		계	남	녀		
1961	61,638	281,518	128,905	152,613	84	4.7
1964	70,072	318,358	149,346	169,012	83	4.6
1966	73,547	336,694	160,276	176,408	90	4.6
제주시	18,497	87,569	42,795	44,774	95	4.7
북제주군	27,091	117,633	54,682	62,951	85	4.3
남제주군	27,959	131,482	62,799	68,683	91	4.7

제주도 통계년보(1967)에서 뽑음

<표3-4> 경북 하회와 제주도의 가구당 평균인구

지명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1964년 2회
하회	5.5	5.4	5.4	5.1	5.7
제주	4.7	4.5	4.4	4.6	4.6

하회의 통계는 김완규저 동족부락의 생계구조연구 P. 41에서 뽑음

<표3-5> 제주도 인구 남녀비

연도	1916	1928	1934	1957	1960	1963	1966
성비	96	93	86	81	87	87	90

천침-저 제주도 P. 283과 제주도 통계년보에서 뽑음

다음, 북촌과 용담의 이번 조사에서 얻은 출산율과 사망율을 보이면 <표3~6>과 같다. 즉 북촌은 인구 1,000인에 대해 출생이 61.8인, 사망이 23.7인이며, 용담은 출생 21.1인에 사망 19.2인므로, 전체 평균은 출생 49.3 사망 22.3의 율을 보여준다. 이 인구의 증가를 도전체의 장기간의 것에 비교해 보면 <표3~7>과 같다. 『934년에서1963년까지의 통계가 정확한 것일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I)

지는 의문이지만 1963년에 비해 그 증가율의 현저한 감소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근래에 번지고 있는 가족계획운동의 영향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표3-6> 출생 및 사망율

북촌			용담			계		
인구	출생	출생율	인구	출생	출생율	인구	출생	출생율
1,182	73	61.8	522	11	21.1	1,704	84	49.3

북촌			용담			계		
인구	사망	사망율	인구	사망	사망율	인구	사망	사망율
1,182	28	23.7	522	10	19.2	1,704	38	22.3

※인구1,000인에 대한 출생율 및 사망율임

<표3-7> 인구의 증가

구분	① 인구 1,000인에 대한 출생수	② 인구 1,000인에 대한 사망수	자연증가율 (①-②)
1934년	22.49	16.76	5.37
1957년	18.64	4.81	13.83
1963년	48.41	12.37	36.04
1967년 북촌 및 용담 평균	49.3	22.3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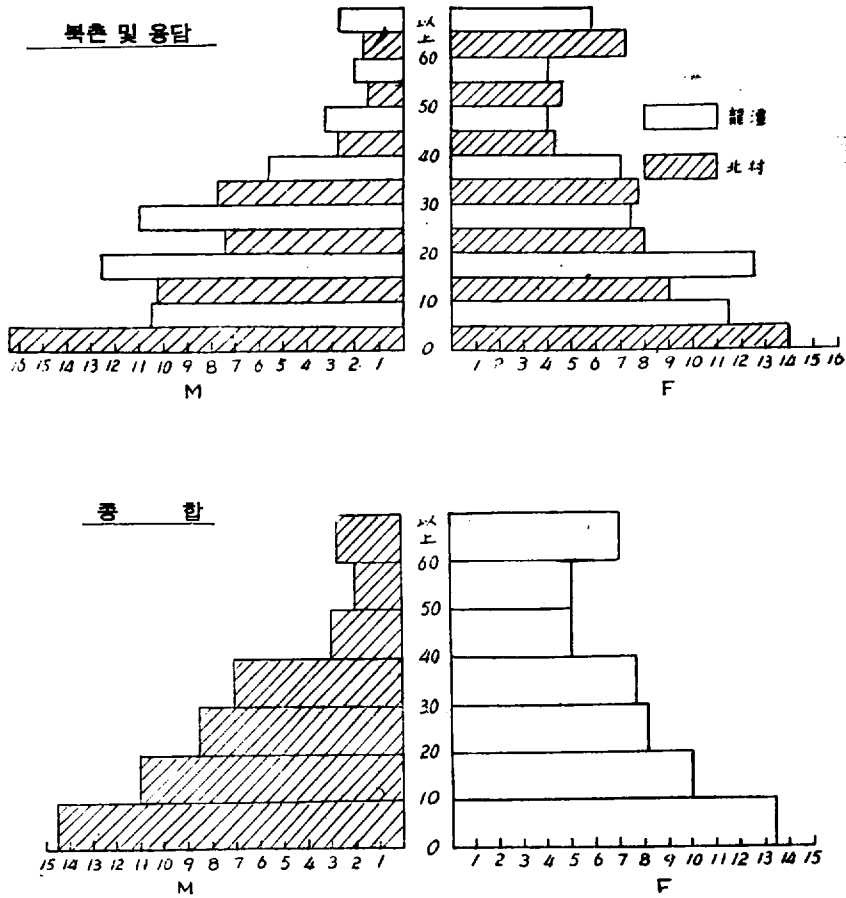
1934~1963년의 통계는 泉靖-著 濟州道 P. 284에서 뽑음

다음은 양리의 주민구성을 연령별 성별로 보고자 한다. <표3~8>이 보이는 바와 같이 양리 합계 남녀의 비는 47.3%대 52.7%로서 여자의 수가 많으며, 이를 이별로 보면 북촌이 남 46.8%, 여 53.2%이고, 용담이 남 48.5%, 여 51.5%로서 용담의 남자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를 년도별로 보면 1~9세 아동이 27.7%로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10, 20, 30대로 갈 수록 그 비율이 낮아가는데, 60대에 이르면 40, 50대 보다도 많은 수를 나타낸다. 이는 60대 이상의 여자가 많은 수를 차지한 데 말미암은 것이다.

한편, 이 주민구성의 년도별 성비를 보면 <표3~9>와 같고, 그것을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그 태후 1과 같다. 여기서 보면 20대 이하는 남자의 수가 1대 성비 110, 10대 111, 20대 109와 같이 많은데 30대 이상이 되면 점점 남자의 수가 적어져 간다. 특히 40대는 69, 50대는 39, 60세 이상은 35와 같이 불균형하게 남자의 비가 낮다. 더구나 60세 이상의 성비는 영똥하게 남자가 적은데, 그 내용을 이별로 찾아 본다면 북촌의 40대 이상 성비가 극히 낮은 점이 눈에 띈다. 북촌은 40대가 66, 50대가 33, 60세 이상에 이르면 27이라는 성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촌의 40대 이상의 남자가 심히 적은 것은 위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4·3폭동사건 때, 전도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다 하다 싶이, 남자가 많이 죽었다는 데 기인한 것이라 보며, 또 일반적으로 여자가 장수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어쩡든 용담의 경우는 50대가 남자 100인에 여자 52이요 60대 이상은 57인데 북촌은 남자 100에 대해 50대의 여자가 33인, 60대 이상의 여자가 27인이라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과부세대가 많은 처량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그래프 1〉 성별·년령별 주민 구성 형태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I)

<표 3-8> 성별, 연령별 주민의 구성

구분 연령	남 자				여 자				계				계
	실 수		%		실 수		%		실 수		%		
	복촌	용담	복촌	용담	복촌	용담	복촌	용담	남녀	남	남	여	
1~9	193	55	16.3	10.5	165	60	14.0	11.5	248	225	14.5	13.2	27.7
10~19	119	67	10.1	2.8	103	64	8.7	12.3	186	167	10.9	9.8	20.7
20~29	83	55	7.0	11.1	91	38	7.7	7.3	141	129	8.3	7.6	15.9
30~39	89	29	7.5	5.6	92	3.5	7.7	6.7	118	127	6.9	7.5	14.4
40~49	31	16	2.6	3.1	47	21	4.0	4.0	47	68	2.8	4.0	6.8
50~59	16	11	1.4	2.1	48	21	4.1	4.0	27	69	1.6	4.0	5.6
60이상	22	17	1.9	3.3	83	30	7.0	5.7	39	113	2.3	6.6	8.9
계	553	253	46.8	48.5	629	269	53.2	51.5	806	898	47.3	52.7	100.0

<표 3-9> 연령별 성비

구분 연령	남 자		여 자		여자100인에 대한 남자의비		계		
	복촌	용담	복촌	용담	복촌	용담	남	여	여자100인에 대한남의비
	1~9	193	55	165	60	117	92	248	225
10~19	119	67	103	64	156	105	186	167	11
20~29	83	58	91	38	92	153	141	129	109
30~39	89	29	92	35	97	83	118	127	94
40~49	31	16	47	25	66	76	47	68	69
50~59	16	11	48	21	33	52	27	69	39
60~이상	22	17	83	30	27	57	39	113	35
계	553	253	629	269	88	94	806	898	90

다음 양리 주민의 교육정도별 구성을 보면 <표3~10>과 같다. 대졸 또는 재학이 복촌엔 남 1.0%, 여 0.2%인데, 용담은 남 5.6%, 여 0.5%이며, 고졸 또는 재학이 복촌은 남 13.1% 여 0%인데, 용담은 남 14.6%, 여 6.1%와 같이 용담의 교육수준이 높다. 이는 용담이가난은 하지만 도시성을 띠었다는 데 그 요인이 있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무학자의 경우를 보면 복촌은 남 20.7%, 여 50.4%이고, 용담은 남 13.1%, 여 36.2%로서 역시 용담의 무학자가 적다. 여기의 무학자란 남자의 경우는 한문수학자를 포함한 것이어서 문맹자는 한사람도 없는 것이고, 여자는 순수한 무학자이어서 문맹자가 대부분인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남자로서 국문미해독자는 거의 없다. 이만큼 남자의 교육수준은 높은 것이다.

<표3-10>

주민의 교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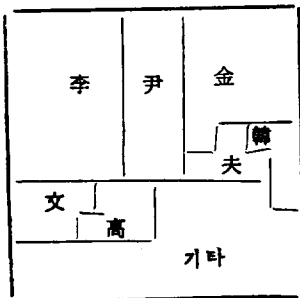
학구	력분	대		고		중		국		무학		계		비동학 년령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북	출실수	1		37		81	31	51	105	85	249	255	385	142	135
	%	0.4		14.5		31.8	8.1	20	27.3	33.3	64.7	100.0	100.1		
	재실수	③ 1	① 17			25	11	111	97			156	109		
	%	1.9	0.9	10.9		16.0	10.1	71.2	89.6			100	100		
촌	계실수	4	1	54		106	42	162	202	85	249	411	494		
	%	1.0	0.2	13.1		25.8	8.5	39.4	40.9	20.7	50.4	100	100		
용	출실수	5		21	7	38	11	36	62	29	77	128	157	41	56
	%	3.9		16.4	4.5	29.7	7.0	28.1	39.5	21.9	49.0	100	100		
	재실수	③ 4	① 17			⑤ 13	① 11	50	37			85	56		
	%	8.2	1.8	11.8	10.7	21.2	21.4	58.8	66.1			100	100		
담	계실수	12	1	31	13	56	23	86	99	23	77	213	213		
	%	5.6	0.5	14.6	6.1	26.3	10.8	40.4	46.4	13.1	36.2	100	100		
계	실수	16	2	85	13	162	65	248	301	113	326	624	707	183	191
	%	2.6	0.3	13.6	1.8	26.0	9.2	39.7	42.6	18.1	46.1	100	100		

○내수는중퇴자수임 남무학및 국해자및 한문수학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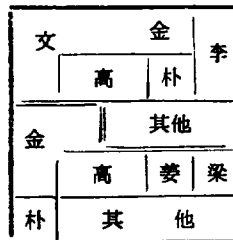
그리고, 양리의 씨족적 촌락성격을 보기 위해 주민의 성씨별 집계를 하여 보면 <표3~11>과 같으며, 이를 그래후로 나타내면 <그래후 2>와 같다.

윤이촌(尹李村)이라는 북촌이지만 윤씨가 30가구, 성주이씨 전주이씨 합쳐서 62가구 밖에 되지 않고, 용담은 문씨가 13가구로 가장 많고 고씨 김씨가 각 7가구가 되나, 양리 모두 어느 성씨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동성부락은 되지 못한다.

<그래후 2> 북촌



용담



※ 二重線 上部는 本籍龍潭世帶
下部는 外里入住世代임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I)

<표3-11>

주민의 성씨별 집계

(1) 북 촌

① 본적 북촌세대

성씨	李	尹	金	文	高	夫	韓	朴	洪	姜	安	許	趙	張	黃	鄭	申	任	白	吳	宋	車	崔	不明	계	
세대수	62	30	43	14	13	10	9	6	6	6	5	4	4	4	2	2	1	1	1	1	1	1	1	1	17	245

② 도외 입주세대

성씨	蔡	郭	李	崔	安	계	총계
세대수	1	1	1	1	1	5	250

※ 불명세대는 여자민의 세대이어서 그남계 성씨를 모르는 것임

(2) 용 담

① 본적 용담세대

성씨	文	高	金	李	朴	康	梁	趙	南	安	徐	姜	吳	申	白	蔡	夫	不明	계	
세대수	13	7	7	6	3	2	2	1	1	1	1	1	1	1	1	1	1	1	4	54

② 외리 입주세대

성씨	金	高	李	姜	梁	朴	康	洪	孫	尹	玄	安	文	陸	계	총계
세대수	12	5	5	4	3	3	2	1	1	1	1	1	1	1	41	95

IV 가족관계 및 친족

1. 가족의 구조

가족의 정의를 정확히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주거와 가계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집단을 가족이라 보고 논술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가족의 한계를 지은다면 주거와 가계를 같이 하는 자라도 비혈연자는 이에서 제외되는 바, 이 비혈연의 가구성원을 찾아 보면 양리중 겨우 북촌에 2인 밖에 없다. 이 2인은 머슴역의 동거자이며, 양리 모두 식모는 한사람도 없다. 제주는 도회지의 극히 부유한 집안이 아니

면 거의 식모를 대리하지 않는다.

양리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이미 <표3~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북촌이 4.7인, 용담이 5.5인이며, 양리 평균은 4.9인이다. 제주도 전체로 보면 가구당 평균인구는 4.7인이며 용담의 5.5인이란 가족수는 도시의 주택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것임은 위에서 말한 바 있다.

이 4.7인이란 가족수는 전국적인 농가 가구당 평균 인구 6.21인¹⁾에 비하면 이색적으로 적은 가족수인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 사회의 가족구조의 유형적 특성에 말미암은 것인바, 다음의 가족의 유형적 고찰에서 입증될 것이다.

다음은 가족의 크기를 살펴보자 한다. <표4~1>이 보이는 바와 같이, 양리 전체로 보면 5인 가족 세대가 18.6%로서 가장 많고, 6인 가족 세대가 14.2%, 3인 가족 세대가 13.3%의 순으로 많다. 이를 이별로 보면 북촌은 5인 가족이 21.2%, 3인 가족이 15.6%와 같은 수치를 보이는데 용담은 8인 가족이 15.8%, 6인 가족이 13.7%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회성 해촌이 시골성 해촌보다 가족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얻는다. 이는 물론 도회의 주택난으로 분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엔 이들 가족수와 세대주의 성별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양리의 세대주의 성별 세대수를 보면 <표4~2>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4·3족동사건 때 인명피해가 심한 북촌의 여세대주 가구가 38.4%로서 용담의 그것(30.5%)보다 많음을 발견한다. 용담만 해도 과부세대가 많다고 조사에 응답하던 동리인이 말하며, 그 원인이 풍수지리적인 지형 때문이라고들 하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북촌의 38.4%라는 과부세대가 타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다음에 이 남녀세대주별 가족수를 산출하여 보면 <표4~3>과 같이 된다. 양리의 남자세대주 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5.6이고, 여자세대주 가구의 그것은 3.7인이다. 결국 과부세대의 가족이 평균 약 2인이 적은 것이 되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이별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적은 북촌이 남녀세대별 가족수도 균등하게 용담보다 적음을 아울러 알게 된다.

한편, 이들 세대주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표4~4>와 같이 나타난다.

양리의 성별 연령별 세대주 분포의 비는 대차 없는데, 특기할 것은 남자세대주의 경우는 30대의 세대주가 42.3%로서 거의 반수를 차지하여 있고, 40, 50대는 19.1%, 11.8%순으로 고령일 수록 점점 분포가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세대주의 경우는 남세대주의 경우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즉 60세 이상의 여세대주가 41.6%로서 거의 반수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50대 40대이하는 28.8%

(3) 농업연감 1968 P.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간 참조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1)

16.0% 11.2%와 같이 저령일수록 그 분포율이 앞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과부세대는 늙은이 세대라는 말이 되는데, 이 원인은 아마 제주도 가족의 분가 관습과 여자는 수절해야 한다는 전통적 논리관 및 비교적 여자가 장수한다는 데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본다.

다음 이들 가족의 세대별 구성을 보면 <표4~5>와 같다.

이 표는 부부 기타 동세대 혈연으로 구성된 세대가 30.9%, 2세대 즉 부부와 그 자녀대 혈연으로 구성된 세대가 51.9%로서 반수이상을 차지하며, 3세대로 이루어진 세대는 16.8%요 4세대로 구성된 세대는 불과 0.6%임을 표시해 준다.

1세대 및 2세대 가족 즉 부부와 그 자녀대로 구성된 세대가 82.8%나 됨을 볼 때, 여기에서도 그 가족유형이 부부가족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음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명확히 살펴기 위하여, 이 가족들을 속병별로 집계하여 보면 <표4~6>과 같이 나타난다. 이 표는 세대주 100인에 대하여 아들이 143.2인, 딸이 114.5인이 된다는 식의 표시다.

이 표에서 보면 세대주 100인에 대해 직계존속의 가족은 15.9인이요, 직계비속의 가족은 297.1인이 되며 방계존비속의 가족은 불과 19.4인임을 알 수 있다. 직계비속은 자녀가 257.7인으로 거의 전부라 할만치 다수이고, 부모 조모등 직계존속은 방계존비속의 수보다도 적다는 것이 특기할만 한 것이다.

그리고 방계존비속의 수가 많은 것은 도회성의 혼잡한 해촌인 용담의 비정상적인 가족구성때문에 그러한 율을 보인 것이다. 북촌의 방계존비속가족은 세대주 100에 대해 14.4인인 데 용담은 32.6인이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들의 가족의 중추는 부부와 직계비속, 특히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직계존속가족이 거의 없다 싶은 것은 제주 특유의 분가형성과 독립거주생활의 풍속에 말미암은 것이라 본다.

<표4-1> 가 족 의 크 기

구 분 가족수	세 대 수		백 분 륜		계		가 족 수	
	북 촌	용 담	북 촌	용 담	세대수	%	북 촌	용 담
1	15	4	6.0	4.2	19	5.5	15	4
2	13	12	9.2	12.6	35	10.1	46	24
3	39	7	15.6	7.4	46	13.3	117	21
4	31	12	12.4	12.6	43	12.5	124	48
5	53	11	21.2	11.6	64	18.6	265	55
6	36	13	14.4	13.7	49	14.2	216	78
7	32	12	12.8	12.6	44	13.8	224	84
8	16	15	6.4	15.8	31	9.0	128	12
9	3	2	1.2	2.1	5	1.4	27	18
10	2	7	0.8	7.4	9	2.6	20	70
계	250	95	100	100	345	100	1,182	522

논 문 집 제 2 집

<표4-2> 세대주 성별

구 분	복 촌		용 담		계	
	남	녀	남	녀	남	녀
세대수	154	96	66	29	220	125
%	61.6	38.4	69.5	30.5	63.8	35.2

<표4-3> 세대주 성별 평균 가족수

분	남			녀		
	세대수	가족수	평 균	세대수	가족수	평 균
복 촌	154	842	5.5	96	340	3.5
용 담	66	397	6.0	29	125	4.4
계	220	1,239	5.6	125	465	3.7

<표4-4> 세대주 성별 연령분포

구 분	20대		30대		40대		50		60대 이상		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복촌	실수	15	3	73	11	28	16	16	26	22	40	154	96
	%	9.7	3.1	47.4	11.5	18.2	16.7	10.4	27.1	14.3	41.9	100	100
용담	실수	7		20	3	14	4	10	10	15	12	66	29
	%	10.6		30.3	10.3	21.2	13.8	15.2	34.5	22.7	41.4	100	100
계	실수	22	3	93	14	42	20	26	36	37	52	220	125
	%	10	2.4	42.3	11.2	19.1	16.0	11.8	28.8	16.8	41.6	100	100

<표4-5> 세대 별 가 족 수

구 분	1 세 대	2 세 대	3 세 대	4 세 대	계	
복촌	실수	371	594	210	7	1,182
	%	31.4	50.3	17.8	0.6	100.1
용담	실수	155	290	77		522
	%	29.7	55.6	14.8		100.1
계	실수	526	884	287	7	1,704
	%	30.9	51.9	16.8	0.6	100.0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I)

<표4-6>

속별별 가족구성원

속	명	복	촌	용	담	계	계
세대수	남	154	250	64	95	218	345
	녀	96	100.0	31	100.0	127	
배우지	부	2	151	1	61	3	212
	부	149	60.4	60	64.2	209	
직계속	조부모	2	42	1	13	3	55
	부모	4	16.8	11	13.7	5	
직계	자녀	336	13.4	158	166.3	494	143.2
	자녀	271	104.4	124	130.5	395	
존속	손녀	29	703	11	322	40	1,025
	손녀	42	281.2	21	338.9	63	
방계	증손	23		8		31	297.1
	증손	1				1	
방계	제매	11		5		16	
	부재수	6		3		9	
존속	외손	3		1		1	
	외손위	15	36	4		4	
비속	사위	1	14.4	9		24	67
	처모			2		3	
속	처			1		1	19.4
	처			4	31	4	
지	지			1	32.6	1	67
	지						
계		1,182		522		1,704	
평균가족수		4.7		5.5		4.9	

다음은 이들 가족의 유형을 보기로 한다.

가족유형의 분류는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여러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제주의 가족유형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누어 놓고자 한다.

- I 부부가족
 - 1. 1인가구
 - 2. 부부가구
- II 직계가족
 - 3. 직계가족 A
 - 4. 직계가족 B
- III 방계가족
 - 5. 방계가족 A
 - 6. 방계가족 B
 - 7. 방계가족 C

1인가구란 남여 어느 일방의 독신가구를 말하고 부부가구란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녀, 또는 부부 어느 일방과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직계가족 A란 부부(또는 어느 일방)이

미혼자녀와 독신인 부나 모를 봉양중이거나 분가 바로 직전의 유배우자녀(혼인을 했으나 아직 자식이 없는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직계가족이며, 직계가족 B란 직계가족 A에다 손자녀까지를 거느리고 있는 가족으로서 제주의 분가관습상 분가되었어야 할 가족이 분가되지 아니한 직계가족이다. 그리고, 방계가족 A란 직계가족 A에다 부양의 의무가 있는 방계가족 즉 미혼제, 매등을 거느리고 있는 가족이며, 방계가족 B는 부양의 의무가 없는 방계가족인 유배우제(제와 제수)가 동거하는 가족이며, 방계가족 C는 서, 외손여, 처모, 처제, 부제 조카등 전원 부양의 의무가 없는 인족까지를 거느리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유형별 구성을 표로 보이면 <표4~7>과 같다.

이 표가 보이듯이 부부가족은 양리 계 63.5%이며, 직계가족은 26.4%인데, 그 중 직계가족 A가 13.8%, B가 12.5%이다. 그리고 방계가족은 전체 10.1%로서 동A가 4.3%, 동B가 1.2% 동C가 4.6%이다.

이들중 직계가족 A는 분가지전의 유배우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가족으로서 얼마없이 분가될 자녀들이고 방계가족 A는 부양의무가 있는 제매가 긴 가족이므로 이들도 사실상의 부부가족형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도 부부가족에 합치면 부부가족의율은 81.6%가 된다.

그리고 보면 사실상의 직계가족은 12.5%밖에 안된다. 따라서 제주의 가족유형은 원칙적으로 부부가족임을 알게 된다.

또한 이 표는 1가구내에 두쌍의 부부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1.2%밖에 아니됨을 나타내니, 제주의 가족유형은 한 가족이 두쌍의 부부로서 구성될 수 없음을 알며, 이는 부부가족형이 정통적인 것임을 더욱 입증해 준다.

그리고 남독신(홀아비)세대는 하나도 없고 과부세대는 5.5%나 됨에서, 전통적인 여자수절의 윤리관의 잔존을 아울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직계가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부부가족제를 특색적인 것이다. 이는 다음에 논술할 분가의 관습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2. 분 가 와 상 속

가족유형의 형성이나 가구의 증가는 혼인과 분가관계에서 이루어짐은 두말할 것도 없다.

<표4~4> 세대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 남세대주는 30대가 42.3%로서 거의 반수에 가까운 가구를 차지해 있고 고령일수록 그 수가 적어지며, 여세대주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41.6%나 차지하며 저령일수록 점점 그 수가 적어짐을 이미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도의 분가관습에 한 원인이 있음도 이미 말했었다.

그러면 그 분가관습이란 어떤 것인가?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 (I)

<표4-7>

가족 유형

유형	구	성	복		용		담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I 부부가족	一、 1인가구	여독신	15	6.0	4	4.2	19	5.5				
		소 계	15	6.0	4	4.2	19	5.5				
		부 부	7	2.8	4	4.2	11	3.2				
		부(夫)+미혼자녀	4	1.6	1	1.1	5	1.4				
		부(婦)+ "	37	14.8	13	13.7	50	14.5				
		부부+ "	100	40.0	33	34.7	133	38.6				
		부부처+ "			1	1.1	1	0.3				
		소 계	148	59.2	52	54.7	200	57.9				
		계	163	65.2	56	58.9	209	63.5				
		II 직계가족 A	三、 직계가족 A	부부(또는어느일방)+미혼자녀+부(父)	3	1.2			3	0.9		
" + " +모 또는조모	29			11.6	9	9.5	38	11.0				
부(婦)+ 미혼자녀+유배우자녀	4			1.6	1	1.1	5	1.4				
부부+ " + "					2	2.1	2	0.6				
소 계	36			14.4	12	12.7	48	13.8				
부(夫)+ 미혼자녀+ 유배우자녀+ 손자녀					2	2.1	2	0.6				
부(婦)+ " + " + "	16			6.4	3	3.2	19	5.5				
부부+ " + " + "	1			0.4	3	3.2	4	1.2				
부(婦)+ " + " + 유배우자녀+손자녀	1			0.4			1	0.3				
부부+ 이혼자녀+ 손자녀	12			4.8	5	5.3	17	4.9				
소 계	30	12.0	13	13.7	43	12.5						
계	66	26.4	25	26.4	91	26.4						
III 방계가족 A	五、 방계가족 A	부부(또는어느일방)+미혼자녀+모또는조모+미혼제대	6	2.4		3.2	9	2.6				
		부 부+ " + 부 모+ "	1	0.4			1	0.3				
		부부(또는어느일방)+ " +미혼제대	2	0.8	2	2.1	4	1.2				
		남 매	1	0.4			1	0.3				
		소 계	10	4.0	5	5.3	15	4.3				
		부부+미혼자녀+ 계+ 제수	2	0.8			2	0.6				
		" + " + 모+제+ 제수	1	0.4	1	1.1	2	0.6				
		소 계	3	1.2	1	1.1	4	1.2				
		부(婦)+미혼자녀+미혼녀+의손녀자녀	1	0.4			1	0.3				
		" + " + 유배우녀+사위+의손자녀	7	2.8	2	2.1	9	2.6				
IV 방계가족 B	六、 방계가족 B	부부+ " + 처또는처제또는부제, 질, 육촌			6	6.3	6	1.7				
		소 계	3	3.2	8	8.4	16	4.6				
		계	21	8.4	14	14.7	35	10.1				
		V 방계가족 C	七、 방계가족 C	부부+ " + 처또는처제또는부제, 질, 육촌			6	6.3	6	1.7		
				소 계	3	3.2	8	8.4	16	4.6		
				계	21	8.4	14	14.7	35	10.1		
				총 계	250	100	95	100	345	100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체로 복세대제라 할 것이다.

가령, 한 부부간에 아들이 셋이 있다 하자. 그 분가방식은 모두 일률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먼저 장자가 혼인하면 이웃에 집을 지어 주고 분가 시킨다. 근 20년전까지는 아들이 혼인하여 첫 아이를 낳을 때 까지는 며느리는 시집과 친정을 며칠씩 왔다 갔다 생활하다가 첫 아이를 친정에서 낳아 업고 오면 그제야 별거를 시켰었지만, 지금은 혼인하자 마자 별거를 시키고 들 있다.

그리고 다음 차자(次子)가 성장하여 혼인하면 다시 전과 같이 별거를 시키고 결국 말자(末子)가 본가에 잔유하게 된다.

이 말자가 성장하여 혼인하기에 이르면 누가 별거하느냐가 약간씩 달라진다. 그 본가를 말자에게 넘겨 주고 부모가 별거하는 수도 있고 말자가 부모가 마련해 준 집으로 별거해 나가기도 한다. 이는 상속할 주택의 규모와 가정사정등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그 본가주택이 말자에게 상속할만한 주택이고 부모의 잔유가족(나이 어린 딸등)이 적을 경우면 부모가 자그마한 새집을 마련하던지 바깥채에 별거해 나가지만, 그 반대의 경우며는 말자를 별거시키게 되며, 또 본가 주택이 장자에게 상속해야 할 큰 집이며는 처음부터 부모가 잔유가족을 이끌고 별거하는 수도 극히 적은 수지만 있긴 하다.

이렇게 하여 나중에는 늙은 부부만이 한 가구를 이루어 살게 마련인데, 그래도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치 않고 독립생계를 하려 한다. 만일 부인이 사망하고 부 일방만이 남았을 경우는 그 연령이 아주 노쇠하지 않은 한, 후처를 마련해서 독립하려 하고, 처 일방만이 있을 때는 노쇠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까지는 홀로 독립생계를 해 나감이 일반이다. <표4~7>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부모와 동거하는 부부가족은 0.3% 독립부를 모시고 있는 집안은 0.9% 독신모 또는 조모를 모시고 있는 집안은 합계 13.6% 밖에 되지 않고, 60세이상의 여세대주가 41.6%, 50대의 여세대주가 28.8%나 차지하고 있음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즉즉 분가를 시켜나가니 20대의 남세대주가 10%, 30대가 42.3%와 같은 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분가 독립생계를 해 나가다가 부모가 늙어서 노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사경에 이르면 장자가 그 부모를 봉양함이 일반으로 되어 있다.

부모들은 아들들을 별거시킬 때, 살 집과 같이 먹을 밥, 그리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를 마련해 주고 별거시킨다. 이를 「세간 살린다」 하는데, 「세간」이란 가구를 뜻하는 말이다. 이만큼 자식을 별거시키는데 식기 취사용구등 가구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로 알고 있다.

이 때에 주는 밭이나 집등은 대개 상속재산이 그대로 됨이 일반이지만 간혹 최후에 가서 이를 재조정하여 분배를 다시 하는 수도 있다.

아들들에게의 상속은 대개 균등하게 분배함이 원칙이다. 다만 장남에게는 균등하게 분배하던 남은 밭이나 밭 대에서부터 장남에게 주어 오던 밭을 「별급」이라 하여 더 상속한다.

이러한 유형적 상속이 균등함에 맞추어 선조의 제사 선묘의 별초등 무형적인 상속도 균등히 분배됨이 원칙이고, 장남에게는 유형적인 「별급」 대신 무형적인 상속이 더 분배된다.

딸들에게는 유형적 무형적 상속이 없음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상으로 보아, 결국 외형상 말자잔유제이면서 장남 우월상속제를 겸한 제도라 할 만 하다.

이러한 상속제 내지 분가제는 근면하고 절약하고 독립심이 강한 도민의 성격 형성에 영향하였고, 또 도민생활에 빈부의 차를 없애고 영세성을 낮게도 했으며, 기타 여러가지 관습형성에 영향하였다.

한편 후사가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데려 유형 무형의 상속을 한다. 그 방식은 부계혈연의 최근친자중에서 동행을 택하여 입양하는 것이다. 즉 아우가 무후일 때는 형이 차남 이하의 아들을 아우에게 입양시키고, 형이 무후일 때는 아우의 장남을 입양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친이 없을 경우는 사촌 육촌등 점점 원친에서 택해 오는데 양자를 데릴 때는 상속할 재산이 많을 수록 쉽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는 어렵게 된다.

그리고 형이 무후로 사망했을 때 아우의 장남은 으레 형에게 입양케 되었으니 그리 정해 놓는데, 그 아우가 다시 생남을 못했을 경우는 아우가 다시 근친에서 양자를 데리는 일을 가끔 본다.

그리고, 혼인연령이 된 자가 사망하여 무후일 때는 사령과 사령끼리 사혼을 시키고 양자를 입양시킨다. 그러니, 만일 독자가 혼인연령이 되었는데 사망하여 후가 없는데, 그 아들의 동행에서 입양할 근친이 없으면 그 사자를 사혼시키고 손자대의 근친을 사자 밑으로 입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후사계승의 강한 의식은 사후관에서 이룩된 제사의 계속을 위한 데에 있는 것이라 본다. 사후에도 생시와 다름없이 의식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양자를 데려야 「죽어도 불을 굶지 않는다」고 하며 최소한의 제사 봉양을 할 후사를 이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친족과 그 기능

가족 이상의 큰 단위로서 가장 작은 친족집단은 어디서나 만찬가지로 고조 이하의 손인 팔촌간이다. 이 당내(堂內)는 조직적 집단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친족중에서 가장 결합도가 짙은 집단이다.

이 집단의 결합이 긴밀한 것은 물론 혈연의식에서 온 것이겠지만, 그 결합의 계기는 선조봉사의 제사에 있다 하겠다.

그들은 고조 이하의 기제·절제를 같이 모여 지내고 다 같이 음복한다. 이러한 참제의 기회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근친감이 강화되는 것이다. 더구나 서너살 난 어린 아이에게까지 제상 앞에 꿇려 배례하기를 가르치는데, 어릴 때 부터의 이런 즐거운 날의 도입과 행위는 일생동안 그들의 승조관과 결합심을 결정지워 놓는 것이다.

그러서 당내는 상 혼등 대사때 맨먼저 모여 노력의 협조와 물질적 부조를 한다.

가령 장사가 났다 하면 당내는 상주를 보좌하여 장사 준비의 여러가지 일을 한다. 지금은 팔촌 이상의 친족에게나 이웃 친지에게까지 두건을 주는 집이 있지만, 원칙상 팔촌까지 두건을 써서 복친이 된다. 상여를 메고 매장을 하고 하는 작업은 복친이 아닌 동리인(상도꾼)이 하고 즉 두건을 쓴 복친은 작업의 뒤치다꺼리를 한다. 한편 당내는 물질적인 특별한 부조를 한다. 물떡 또는 도래떡을 모밀쌀 한말어치를 해가는 것인데, 지금은 「밀가루」빵으로 바꾸어 쪄다. 이를 「고적」이라 하는데 완전 의무제로 되어 있어 명부에 체크를 해 가며 맡는 데가 많고, 그래서 그날의 상도꾼을 먹인다.

혼인의 경우는 보통 쌀 한말의 부조와 신부의 옷감등을 선사한다.

이럼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정신적 결합도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5대조부터는 기제·절제를 지제하고 연제(年祭)의 묘제를 한다. 따라서 팔촌이 지나면 제사를 통하여 참집하는 기회가 묘제 한번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그 묘소들은 대부분 촌락과 거리가 멀기 까닭에 어린 아이들은 참집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의 유대는 당내보다 희박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5대조 이상의 해당 조고 비의 묘소의 별초, 묘소의 수축, 족보의 안치등 여러가지 기회에 참집하게 되며, 그래서 대소사 때에 당내 다음의 친근감으로 상부상조 한다.

이렇게 하여 점점 원족이 되어 가는데, 동족끼리는 입도시조의 묘제까지를 같이 모여 지내고, 족보의 편찬, 공유재산의 관리등으로 문중회를 여는 등, 동족결합의 기회가 있으나, 촌수가 멀면 멀수록 그 결합도는 희박하여 남남끼리 처럼 되어 간다.

한편, 친족내의 질서는 항렬의 높은 자와 고령자의 의견에 순종함으로써 유지된다.

제사때의 음복하는 것을 보면 연령순으로 음식이 분배되어, 어린 아이는 가련하도록 기다려도 맨 나중에 몫을 받는다. 이런 일은 어릴적부터 연령의 질서를 몸에 배게 하는 것이요, 그 됨으로써 연령의 권위가 존엄하게 되고 그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다.

요는 친족집단의 결합은 승조사상에서 발원하고 기제·절제·묘제등을 통하여 사회적 정신적 결합에 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합도는 촌수의 원근에 좌우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구미문화의 물결에 따라 승조사상이나 동족의식이 점점 희박해 감이 사실이다.

V 촌락의 조직

하나의 촌락이 붕괴되지 않고 사회로서 운행되어 나가는 것은 그 사회 성원간에 질서가 확립되고 서로 믿고 돕고 하는 유대관계가 있기 까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질서 및 유대관계의 한 체계가 위에서 언급한 친족결합이거니와, 이 친족관계를 제외한 유대관계구조를 개관해 보려는 것이 본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적인 유대체계와 비조직적인 유대관계의 관습으로 나누어 살펴 감이 좋겠다.

조직적인 체계는 다시 피동적 조직과 자발적 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동적 조직이란 국가기관에서 행정 및 산업 사회운동등을 위하여 조직의 지시 또는 권장에서 이루어진 조직이며 자발적 조직이란 촌락내의 질서 친목 협동등을 위하여 촌민들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북촌의 조직들을 주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피동적 조직

북촌내의 피동적 조직은 행정조직 산업조직 성집단 연령집단등의 성격의 것들인데, 일전해서 그 수가 매우 많다.

다음에 표로써 이를 보이는데, ☆표를 한 조직들은 과거에 피동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잔존이거나, 권장에 의한 조직으로서 반피동적 조직이라 할 만 한 것이다.

피동적 조직 (북촌리)

명칭	성격	조직 체계	회원의성별 및 연령층	사업	비고
북촌리사무소	행정구조	면장-이장-반장-반원	전 세 대	행정사업	
북촌리농업협동조합	산업조직	조합장-이사-간사	농가전부	농민의 이익보호	
북촌리실림계	"	계장-이사-감사	임야물가진농가	조립·산림보호	
북촌리개발계	"	이장(겸)-개발위원		지역사회개발사업	
북촌리시범어촌계		계장-간사-총대	부인회 잡수회 어부회	어민의 이익보호	
잡수회	"	고문-회장-부회장-1, 2, 3동임원-회원	18~60세의해녀	해녀의 이익보호	
☆북촌리부인회	성집단	잡수회와 동	잡수회와 동		잡수회원이 곧부인회회원이므로 사실상 유명무실
☆북촌4개구락부	연령집단	회장-간사-회원	14~24세의남녀		근래별활동없음
생활개선구락부	성집단		24세이상의여자		유명무실격
농사개량구락부	"		"		"
☆청년회	"		19~35세의남자		재건청년회이후 유명무실격

행정조직의 장인 이장은 면의 행정지시를 집행하는데, 그 행정력은 반원에게 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다. 이장의 하는 일은 행정사무뿐 아니라 그 외의 마을 전체의 일, 이를테면 신년춘제인 포제 행제를 위해 향회를 소집하고 그 집행부서 선출까지의 중개역등의 일도 한다.

농협이나 산림계등은 지시사무의 집행정도도 큰 특색이 없으나, 어촌계 산하의 어부회, 잠수회(해녀회)등은 그 활동이 활발하다. 이 회는 미역 채취시일의 결정, 해녀및 어부들의 제반 복지 및 규제 그리고 어획한 고기, 미역, 전복, 소라, 천초등의 판로와 가격의 절충등 그들의 수익과 작업에 직접 관계된 일을 한다. 따라서 회장이나 간부의 말을 회원들은 잘 순종한다.

이 회에서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촌락의 수호신인 본향당에 당굿을 준비하고 동네 신방(무덤)으로 하여금 굿을 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당굿은 음2월13일의 영등굿이요, 다음은 음1월14일의 신과제제다. 영등굿 때는 잠수회원 각자가 50원씩(1967년의 경우) 거출하여 제물을 마련하는데, 그 준비는 회임원들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신과제제때는 이제까지 이자금에서 3,000원 내지 4,000원을 거출하면 이것으로 잠수회 임원들이 제물을 차려 굿을 해왔다 한다.

현재 잠수회원수는 240명인데, 이 수는 한 가구에 1명씩만 입회한 수이고 실지의 해녀수는 15·6세부터 60세까지의 여자는 전부 해녀이니, 400명은 해아릴 것이라고 한다.

각회원은 연회 150원을 내며, 1, 2, 3동 회원중에서 동마다 6명씩의 임원이 선출되어 회를 운영하는데, 그 상부기관인 어촌계는 어부회와 잠수회에서 선출된 남총대 6명 여총대 16명 계 22명의 총대로써 구성된다.

이들 회원들은 이 회의 모임과 작업 그리고 당굿의 참집등을 통하여 협동의식이 한결같이 강화되고 친목과 유대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이 외의 생활개선구락부, 농사개량구락부등 여성단체가 명목상 있기는 하나 실지의 활동은 없다.

이들 피동적 조직들은 여러 계열의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단체의 조직은 되어 있으나, 한 사람이 수개 단체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활동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될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다한 조직으로 말미암아 바쁘게 고생하는 이는 유지층들이다. 그들은 이 여러개의 단체에 임원을 중복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여기 저기의 일을 보느라고 몹시 바빠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어떻든 이러한 조직들이 소기의 활동을 하든 못하든 사회적 정신적 촌민의 결합에 많이 영향하고 있고,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근대화에 많이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2. 자 발적 조직

북촌의 자발적 조직들은 대부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계기인데, 그 일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적조직 (북촌리)

명칭	성격	조직체계	회원층	사업	비고
향회	구행정촌조의잔존	이장의 중개로 선출된 향장이 지도	중년층이상의남자	포제거행관리및 촌락의공동사업	일기1년으로만료
북촌체육회	체육회		희망체육청년	천선체육회개최	
유림회	신앙및상조촌조	회장-부회상-총무 재무	중년이상의남자	대사 상부승유사업	
산담계	상조촌조	간사가 관리	"	묘지 울타리의 순번축조	
계계	"	"	처녀들	결혼시 궤 부조	
단스계	"	"	"	결혼시웃장부조	
쌀계	"	"	중년이상의부인	대사때쌀부조	
팍목계	"	"	"	장례때팍목부조	
베타계	상조촌조	간사가 관리	중년이상의부인	장례때마포부조	
친목계	"	"	남녀각계가 많음	대사때상조	
금전증식의계류	금융식조직	"	"	금리증식	16제 다나모시 기타의 이용으로 불리고있음

향회는 구자치행정촌조의 잔존이다. 근대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때는 이 향회에서 촌락의 차치적인 운영을 의논하고 집행했었다. 촌락의 집행관리, 도로수리, 방범대책 촌민의 제재 등 제반 촌락관리를 하던 조직이었는데, 근대적 행정체계가 서자 신행정계통에서 소외되어 버린 촌락의 공동사업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의 향회는 신년의 촌제인 포제를 집행관리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구정초가 되면 이장이 향회를 소집하여 향상을 선출토록 중개역을 한다. 그러던 중년층이상의 촌민이 모여 노인층의 유지를 향장으로 선출하고 헌판 집례 대축등 계판과 제의관리 부서를 선출한다. 이렇게 하여 유식제법(儒式祭法)으로 촌제를 지내면 그들의 임무는 완료되는 것이다.

체육회는 학교생활때 체육에 관심을 갖던 청년들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웃마을 청년들과의 친목 축구대회등을 열며, 유림회는 한학에 조예가 있는 중년이상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간의 대사때의 부조, 향교의 석존제 참례, 훈장잔치의 축하등 기회에 회동(會同)하며, 가끔 풍월 짓기등을 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산담계는 조상의 묘소에 울타리를 순번으로 돌아가며 해주는 계다. 제주에서는 묘소에 화입(火入)과 우마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묘소에 4각형의 울타리를 쌓는데 이를 하려면 2~3만원의 경비가 든다. 따라서 이 계는 일시에 다액의 경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회원들이 경비와 노력의 협조로써 순번으로 산담(묘울타리)을 해 주는 계인 것이다.

례계 및 단스계는 처녀들이 시집갈 때 차리고 갈 례(반달이) 단스(옷장)등을 회원끼리 돈을 모아 순차적으로 사주는 계이고, 쌀계, 팜목계, 벵계등은 중년이상의 부인들이 자녀의 혼인이 나 장사가 났을때 사용할 쌀, 팜목, 베(麻布)등을 회원이 돈을 모아 순번적으로 사 주는 계이다.

그 외의 친목계들은 매월 회비를 모아 이자를 증식하고 친목의 모임을 갖고 하는 계들인데, 이것에는 순수 금리증식을 위한 것과, 그 돈으로 회원중 대사가 났을 때 도와주기 위한 것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촌민의 유대관계에 얼마만큼 작용하는가를 형식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어쨌든 이 계기가 촌락의 경제순환에 큰 영향을 하고 있고 또 촌민간의 사회적 정신적 결속을 이어 나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도회성 해촌인 용담은 시골성 해촌인 북촌에 비하여 이러한 촌조(村組)가 적고, 그만큼 촌민의 정신적 유대가 희박하여 전통적인 미풍이 사라져감을 볼 수 있다.

3. 비조직적 결합

여기서 언급코자 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직체계는 없으나 사회적인 결합을 축성하는 관습들이다.

이것은 권리의무관계로 맺어지는 것과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증답(贈答)의 관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권리의무관계로 맺어지는 협동의 기회를 보면 용수의 수리, 도토의 수리, 우마의 공동관리, 방범관리, 방아의 관리, 기타 이웃끼리의 부역등이 있다.

용수는 그 물을 쓰는 이웃끼리 공동관리를 하나 그 관리를 이를 조직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수리해야 할 기회가 이르면 누군가 먼저 그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서로 무난히 합의가 되어 가호마다 1인씩 다 나와서 수리작업을 한다. 이 부역은 의무화되어 있고, 이 때의 지도와 힘의 역시 연장자에 있다.

촌락내의 길이 험해질 때도 역시 관리를 위한 조직은 없지만 그 길을 사용하는 이웃끼리 연장자의 지도밑에 자발적으로 의무적인 부역을 나온다.

이러한 이웃의 회동의 기회에 촌락생활을 위한 여러가지 사항이 의논되고 부역에 빠진 가구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된다.

우마의 공동방목관리로써 「번쇠」라는 것이 있다. 봄 또는 초 파종이 끝난 여름엔 우마의 사역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마를 목야에 방목하게 마련이다. 이 우마를 이웃끼리 한데 모아 소판목양지에 방목하는데, 그 입자들이 순번제로 이를 감시관리하는 것을 「번쇠(番牛)」라 한다. 우

마의 방목기에 이르르면 이웃의 누군가가 이를 발의하면 무난히 이웃끼리 번져 합의가 되고 순편이 정해져서 시행되는 것이다.

방법관리는 주로 겨울철에 행해진다.

밤이 긴 겨울이 돼 가던 가끔 도둑이 성해간다는 소문이 나돌기를 하는데, 그때가면 아랫목에 앉아 고담하던 노인들간에 「순을 돌아야겠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은 곧 젊은이들에게 넘겨진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순번을 정하여 촌락입구에 초막을 지어 밤을 지키고, 밤중에 몇 번씩 집집을 돌아다니며 자는 잠을 깨워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를 「순돈다」고 하는데 순도는 이는 집집마다 가서 「잠수가? 순 들압수다(주무십니까? 순돌고 있습니다)」라 하여 잠을 깨우고 반드시 순시함을 주인에게 알린다.

지금은 도정기가 보급되어서 방아가 거의 없어졌지만, 전에는 십여호씩의 이웃끼리가 하나의 연자방아를 이용했는데, 이 이웃은 이 방아관리의 공동책임에 있다. 방아의 보수, 방아집 외 수리등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재목 따 등을 균등히 수합(收合)하고 공동노력으로 보수를 한다. 그리고 방아의 사용순은 좁팍(나무 바가지)이나 키 등 표식물을 먼저 연자방아 바닥에 얹어 놓은 이가 우선권이 있어 질서가 지켜진다.

이와 같은 공동부역과 모임의 기회를 통하여 촌민은 친밀감이 복돋고 정신적인 유대가 강화돼 나가고 있다.

다음은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노력의 협조, 물품의 증답등을 몇가지 보기로 한다.

먼저 장사때의 협조를 보면 이웃의 바느질 솜씨 있는 부인들은 상가(喪家)에 가서 수의 두견 상복들을 만들어 주고, 다른 부인들은 물 길어다 주기, 떡하기, 밥짓기등을 도와 주고, 남자들은 그 매장의 작업을 한다. 이 역군을 상도꾼이라 함은 위에 말했거니와, 상도꾼은 상주가 비는데 따라 달라진다. 상주가 동리 전체를 빈다든지 일부를 빈다든지를 정하면 복친이 그 가가 호호를 방문하고 수고하여 주십사고 요청한다. 그러면 자가호에선 의무적으로 1인씩의 장정이 상가에 나와 조반을 먹고 그날의 매장을 맡아 하는 것이다. 장지에선 술과 떡이 대접되고 상도꾼들은 노래와 오락을 접쳐가며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한편 상가에서는 떡을 하여 온 동리 또는 그 일부(가까운 이웃) 각 가호에 나눈다. 이를 「반테운다」고 한다.

이 떡 나누기는 소상 대상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제는 차차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음식의 분배는 기제, 절제에도 있다. 이 때는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범위가 좁혀지지만 계사를 지낸 후, 나머지 음식을 이웃집에 가져 가고, 또 이웃집에서도 가져 온다. 이를 「떼물 나눈다」고 한다.

또한 초상 및 대소상 때에는 노력의 협조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조를 한다. 남자들은 지층 또는 현금으로 부조를 하여 조문하고, 부인들은 떡으로써 한다. 전에는 멧밥 한 그릇을 해다 제상에 올리고 곡을 하거나, 송편 등 떡을 부조하는 것이 부인들의 조문이었으나, 오늘날은 다 빵으로 바뀌어졌다.

여기 특이한 것은 이 떡 부조를 여러 상제에 각각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 상제는 또한 음식의 대접도 각각 이종으로 한다. 이렇게 부조를 각각 하는 것은 상제 경비를 각 상제가 공동으로 균일 부담하기 때문이다.

혼인잔치 때에도 동일하게 노력의 협조나 금품의 부조를 함은 물론이며, 가옥의 신축시는 여자들은 물을 길어다 주고 남자들은 담을 쌓고 흙질을 하곤 해 준다.

이런 일뿐 아니라 식료품의 증답이 많이 있다. 가령 못에서 나물을 씻다가 이웃 사람이 보이면 이 나물 좀 갖다 먹으라고 준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다음 기회에 다른 것을 그 답례로 또 준다.

이러한 금품의 부조, 음식품의 분배, 기타 물품의 증답이 얼핏 보면 경제적인 낭비임에 틀림 없겠으나, 이것이 촌민의 경제순환, 자급자족 및 사회적 정신적 결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고, 그들의 생활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켜 촌락사회를 순조로이 운영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도회성 해촌은 시골에 비해 훨씬 증답이 적고 그만큼 촌민의 결합도가 낮다.

부 언

이 조사는 제주도 민속지 작성을 위한 진단계적 작업이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해촌생활의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 기술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려는 데 있다. 특히 본고는 그 일부의 보고이기 까닭에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이제까지의 기술을 요약한 소감을 몇마디 부언함으로써 일부 보고를 끝추려 한다.

북촌은 전형적인 시골형 해촌으로서 지리적 환경이 어렵에 유리하여 아직도 어촌적 사회구조가 비교적 완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용담은 도회성 해촌이어서 그 지리적 환경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촌적 구조가 거의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북촌은 가구당 평균 가족 4.7인의 부부가족제가 거의 정연하고 주민의 구성이 어촌사회로서의 경제 및 문화구조에 밀착되어 있으나, 용담은 그 가족구성이 흔들리고 주민의 구성이 혼잡성을 띠고 있다.

촌락사회의 외형적인 질서와 유대는 피동적 촌조직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나, 그 내면적인 잘

서와 유대는 전통적인 자발적 촌조직과 친족결합 및 상부상조의 관습으로 강화되어 나간다. 즉 근대적 조직체계와 전통적 자치조직체계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전형적인 해촌인 북촌이 용담에 비해 전통성이 강하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제주도 해촌이 근대화의 강요 속에서 갈등과 주어(齟齬)를 거듭하면서 아직도 전통적인 재래 문화유형을 보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 완>